

# 李齊賢의 蘇軾 豪放詞의 변용 考

이태형(제1저자)\* · 박미숙\*\*

## <차 례>

1. 서론
2. 中國詞의 유입과 李齊賢의 詞 창작배경
3. 李齊賢의 蘇軾 豪放詞의 수용양상
  - 3.1 호방사의 정의 및 특징
  - 3.2 이제현의 소식 호방사 체험과 습작
4. 결론

## <국문초록>

고려시대 중국사는 음악과 악공의 수입, 귀화한 중국인의 영향, 중국 서적의 대량 구입, 고려 왕들의 애호 등에서 기인하여 유입되었다. 당시 이제현은 충렬왕을 모시고 元나라에 가서 많은 중국문인과 만권당에서 교류했고,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羈旅, 自然風光, 抒情 등을 중심내용으로 총54수의 시를 지었다. 그의 豪放詞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北宋代 蘇軾 豪放詞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당시 송대 중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소식의 시를 전범으로 삼고 창작에 임했다. 이제현은 소식 호방사와 비슷한 내용·주제·전고를 사용했고, 같은 사조를 운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비슷한 구절이나 어구의 차용, 소식사 원문에 차운 혹은 화운하기도 했다. 이처럼 내용과 형식방면에서 두루 그의 시를 모방하여 창작했지만 그는 소식사를 무조건 모방하지 않고 고려인이라는 주체성을 지니고 나름대로 소화시켜 고려의 토양에 맞는 독창적인 시를 창작하려고 노력했다는

\* 한국의국어대학교

\*\* 한국의국어대학교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호방사를 지은 원인은 당시 元의 속국이었던 高麗의 한 사신으로 元에 가서 중국 사인들의 영향을 받아 悲壯한 감정과 망국의 비통함, 이방인으로서 처량한 심정을 豪放한 필치로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핵심어 : 이제현, 고려, 원, 소식, 호방사

## 1. 서론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詞는 唐代 민간에서 발생하여 宋代에 이르러 크게 성행한 詩歌 문학형식으로, 이웃한 高麗(918-1392)의 문단에 유입되어 한국에 詞라는 새로운 운문을 형성시켰다. 中國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학 장르들은 그 대부분이 고려나 조선의 문인들에게 전래되었고, 나름 대로의 토착화 과정을 거쳐 자국 漢文學의 일부분으로 자리 매겨졌다. 宋 韻文의 주류였던 詞 역시 宋과 高麗의 외교 관계가 복원된 11세기 후반부터 고려 문단에 移植되기 시작하여, 조선 말엽까지 약 8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작가와 작품을 생산하여 왔다. 물론 그 성취도가 唐宋 名家詞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발견된 1,250여 수의 사는<sup>1)</sup> 漢文學의 韻文 중 漢詩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詞가 高麗와 朝鮮의 새로운 體裁의 문학 장르 예를 들면 佛歌의 歌頌,<sup>2)</sup>

1) 류기수, 『歷代韓國詞總集』,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6.

2) 李丙疇 등, 『韓國漢文學史』, 서울, 반도출판사, 1991, 165쪽: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고려 말엽에 있어서 懶翁和尚(慧勤, 1320-1377)의 三歌, 翫珠歌, 百衲歌, 枯髒歌의 基本 律調가 3·3·7·7·7이라는 점이다. 詞에 있어서 「鷓鴣天」의 後段 자수율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가의 歌頌이 永嘉大師의 「證道歌」에서 비롯되고, 이 「증도가」의 율조도 詞의 율조와 유관하다 한다면, 고려에

小樂府, 別曲, 時調, 歌辭, 漢文小說 등<sup>3)</sup>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한다면, 漢文學에 있어서의 詞文學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분야이다.

李齊賢 (1287-1367)은 字가 仲思이고 號가 益齋 또는 櫟翁이다. 그의 문집 『益齋集』 권10에 15調 54수의 詞가 실려 있다.<sup>4)</sup> 淸의 伍崇耀가 1862년 『輿雅堂叢書』를 간행할 때, 李齊賢의 『益齋集』을 제23집에 담았으며, 淸의 朱祖謀(1857-1931)가 『彊邨叢書』에 그의 詞 54수를 『益齋長短句』라 명명하여 수록하여, 중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淸代의 況周頤는 李齊賢 詞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제현의 사중에 「太常引·暮行」의 “등불은 반딧불보다 작고, 사람은 보이지 않으며, 이끼 낀 문짝이 반쯤 닫혀 있다”와 「人月圓·馬嵬效吳彦高」의 “살짝 찌푸린 속에, 어양의 호마소리 들려, 놀라 예상우 곡을 망쳐 버렸다네”와 「菩薩蠻·舟次青神」의 “밤 깊어 뱃 속에서 자는데, 어둠 속의 물결이 금과 축의 소리를 내는구나”, 「巫山一段雲·山市晴嵐」의 “시내 건너 어디선가 자고새 울고, 구름과 해는 가리웠다 밝았다하네”, 「前調·黃橋晚照」의 “석양에 길가다 문득 고개 돌려 보니, 붉게 뭍은 나무는 오릉의 가을이라” 등의 구절은 兩宋의 名家詞 사이에 놓아도, 거의 부끄러움이 없다. (益齋詞, 「太常引·暮行」云: “燈火小於螢。人不見、苔扉半扃。” 「人月圓·馬嵬效吳彦高」云: “小顰中有, 漁陽胡馬, 驚破霓裳。” 「菩薩蠻·舟次青神」云: “夜深篷底宿。暗浪鳴琴筑。” 「巫山一段雲·山市晴嵐」云: “隔溪何處鷓鴣鳴。雲日曷還明” 「前調·黃橋晚照」云: “夕陽行路却回頭。紅樹五陵秋。” 此等句, 置之兩宋名家詞中, 亦庶幾無愧色.)<sup>5)</sup>

이처럼 그는 이제현의 사를 중국의 유명한 사인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고 극찬을 했다. 그의 사작품은 小令에서 慢詞까지 다양한 長短句로 씌어져 있어 그 폭을 넓히고 있다.

있어서 佛歌의 歌頌이 詞의 율조와 연관이 있다 함이 무리는 아니다.”

3) 류기수, 「中國과 韓國의 「巫山一段雲」詞 研究」, 『中國學研究』 제8집, 1993, 236-237쪽 참고.

4) 모두 54수이나 「巫山一段雲·煙寺暮鐘」은 제목만 있고 詞가 남아있지 않다.

5) 唐圭璋, 『詞話叢編』, 北京: 中華書局, 2005, 1479쪽.

그동안 이제현 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은데, 주로 이제현 작가와 사 작품, 연원, 풍격, 경계, 후대에 끼친 영향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sup>6)</sup> 물론 한중사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쓴 논문도 몇 편 있기는 하다.<sup>7)</sup> 필자는 이런 단방향적인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한중사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제현이 활동했던 고려시대에 중국사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고 아울러 그가 사를 짓게 된 창작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高麗詞의 거장 李齊賢이 중국의 대표적인 豪放詞人 蘇軾(1036-1101)<sup>8)</sup>의 詞를 어떻게 배우고 습작했는지 두 사인의 작품 분석을 통해서 그 흔적을 더듬어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 작가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生涯, 思想, 風格, 主題, 內容, 表現技巧, 形式, 用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의 詩나 詞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用典을 취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영향 관계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用典만을 근거로 영향관계를 따져 들어가다 보면 자칫 전대의 모든 작가와 작품이 그

- 
- 6) 대표적으로 중요한 의의 있는 저서와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池榮在, 「中國詞의 風格에 대한 研究」, 『中國語文學』제2집, 1981./ 池榮在, 「益齋長短句의 成立」, 『中國文學報』제4호, 1980./ 金聖基, 『李齊賢의 詩文學研究』,首爾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0. / 黃拔荊, 「試論中國豪放派詞風對朝鮮詞人李齊賢的影響」, 『國外文學』, 1990.2./ 羅愷烈, 「高麗·朝鮮詞說略」, 『文學評論』, 1991.3./ 車柱環, 「高麗與中國詞學的比較研究」, 『詞學』第9輯, 1992./ 金乾坤, 『李齊賢文學研究』, 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3./ 柳己洙, 『李齊賢及其詞之研究』, University of Hong Kong, 博士學位論文, 1991./ 柳種陸, 「在高麗及朝鮮文壇對於中國詞文學的受容和展開」, 『中國學報』第四十輯, 1999年12月./ 李鳳能, 「李齊賢和他的旅蜀詞」, 『文史雜誌』, 2000.1./ 池榮在 著, 『尋找西征錄』, 靑綠歷史, 2003./ 柳己洙, 「高麗時期詞人及詞文學發展背景考察」, 『中國學研究』第29輯, 2004年9月./ 尹上林, 『益齋 李齊賢 詩·文的形象及技法』, 太學社, 2004.
- 7) 차주환, 「韓中詞學之比較」, 『韓國研究』제3기, 1981.3./ 백정희, 「韓中詞의 比較研究」, 『中國學論總』第9輯, 1993./ 류기수, 「한국과 중국의 巫山一段雲 비교」, 『中國學研究』第8輯, 1993.
- 8) 소식은 眉州 眉山(지금의 사천성 미산현) 사람으로 자는 子瞻 또는 仲和라고 하며 호는 東坡居士, 雪浪齋, 靜常齋 등으로 불리며 남송 高宗으로부터 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아버지 蘇洵(1009-1066), 아우 蘇轍(1039-1112)와 더불어 三蘇라고 불렸고 현재까지 전하는 그의 시는 2000여 수가 있고, 사는 300여 수가 있다.

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까지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을 모두 고려하여 따로 절을 나누지 않고 내용, 형식, 전고, 표현 기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中國詞의 유입과 李齊賢의 詞 창작배경

고려와 宋(960-1279)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정치적 외교를 위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고려가 과거 급제자 혹은 관리로 활동하던 문인들을 사신의 직분으로 宋에 파견하거나 宋의 사신들이 고려에 파견되어 오으로써 제도와 학술 외에 문화의 왕래가 활발하였다. 이들을 통하여 고려 문인은 사신으로 송에 머물면서 詞를 접하게 되거나, 송에서 전래된 서적과 문헌 중에 섞여있는 詞集등을 읽을 기회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唐宋代에 걸쳐 새로운 외래음악이 중국전통음악과 결합하여 탄생한 燕樂이 고려조정에 전해지고 조회와 연회를 통해 가사를 창하는 연악이 연주됨으로써 사대부층에 점차 詞라는 운문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처럼 고려시대 詞文學의 유입 경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는, 음악과 악공의 수입 때문이다. 詞는 음악이 어우러진 韻文이기에, 중국 음악의 수입은 高麗詞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려는 여러 차례 중국에 악기와 악공을 요구하였다. 『高麗史·樂志·用俗樂節度』에도 이 때 중국에서 들여온 음악에 관계된 내용이 적혀 있다.

“문종 27년(1073년) 2월 을해일에, 교방에서 아뢰기를 “여제자 진경 등 13인에게 전습시킨 「답사행」가무를, 연등회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 의견을 따랐다. 11월 신해일에 팔관회를 베풀고, 왕이 신봉루에서 교방악을 감상하였는데, 여제자 초영이 “새로 전습한 것으로는 「拋毬樂」과 「九張機別伎」가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文宗二十七年二月乙亥, 教坊奏女弟子眞卿等十三人所傳「踏莎行」歌舞, 請用於燃燈會, 制從之. 十一月辛亥,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教坊女弟子楚英奏: “新傳「拋毬樂」, 「九張機別伎」)”<sup>9)</sup>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踏莎行」, 「拋毬樂」, 「九張機」 모두 詞牌로서, 중국에서 수입된 음악에 詞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사신들은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로 樂工들을 불러 음악을 배우기도 하였고,<sup>10)</sup> 혹은 직접 曲譜를 베끼기도 하였다. 蘇軾은 「論高麗買書利害劄子·其一」에서 고려 사신이 曲譜를 베끼는 일을 금지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1)</sup> 蘇軾의 劄子は 宋 元祐 8年(1093) 二月初一日에 작성된 것으로, 『宋史·高麗傳』에 의하면 元祐 7年 고려에서 黃宗慤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고 하였는데,<sup>12)</sup> 아마 그들이 곡보를 베끼다가 蘇軾에게 금지를 당한 듯 하다. 이렇게 수입된 중국의 음악은 상당 수량으로, 1123年 고려에 사신으로 온 徐兢은 “음악과 춤이 날이 갈수록 성하여, 가히 보고 들을만하다”고 하였으며,<sup>13)</sup> 朴堧(1378-1458)도 “『唐樂』一部는 바로 중국의 俗部の 음악이다. 기 음악이 총 백여 편에 이른다”이라고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sup>14)</sup>

둘째, 귀화한 중국인의 영향 때문이다. 고려의 옛 제도를 보면 다른 민족의 귀화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능 있는 宋나라 사람의 귀화는 받아들이고 있었다.<sup>15)</sup> 『宋史·高麗傳』의 기록에 의하면 적지 않은 宋나라 사람들이 고려에 귀화하여 살고 있었다.<sup>16)</sup> 기록 중에 나타난 귀화인들 중에 張廷, 盧寅, 陳涓, 慎修, 張忱, 林完, 王逢辰은 宋의 進士 출신이고, 周

9) 『高麗史』(二), 471쪽.

10) 『宣和奉使高麗圖經』 卷40, 3쪽 참고.

11) “近據館伴所申, 乞與高麗使抄寫曲譜。臣謂鄒衡之聲, 流行海外, 非所以觀德。若朝廷特旨爲抄寫, 尤爲不便, 其狀臣已收住不行。” 孔凡禮點校,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86, 996쪽.

12) 脫脫,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85, 14, 48쪽.

13) “樂舞益盛, 可以觀聽”, 『宣和奉使高麗圖經』 卷40, 3쪽.

14) “唐樂一部, 則乃中國俗部之音也。其樂總百有餘篇。” 朴容大等, 『增補文獻備考』, 서울, 韓國學振興院, 1987, 卷中 288쪽. 그러나 鄭麟趾 등이 『高麗史』를 편찬할 때, 상당 수량의 唐樂 작품을 삭제하여, 현존하는 『高麗史』 卷71 「樂志·唐樂」에는 59篇 72수의 詞만이 남겨져 있다.

15) “舊制, 本國邊民曾被蕃賊所掠, 懷王自來者與宋人有木藝者外, 若黑水女眞並不許入.” 『高麗史』(一), 138쪽.

16) “王城有華人數百, 多閩人因買舶至者, 密試其所能, 誘以祿仕, 或強留之終身. 朝廷使至, 有陳牒來訴者, 則取以歸.” 『宋史·高麗傳』 14, 53쪽.

沆, 胡宗旦, 劉載는 문장에 능했으며, 蕭鼎, 蕭遷, 葉盛은 음률에 정통하였으니, 이들과 교류한 고려의 문인들이 당시 한창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詞를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셋째, 서적의 구입 때문이다. 고려는 중국의 황제의 하사와,<sup>17)</sup> 중국 상인들의 증정,<sup>18)</sup> 고려 사신들의 구매<sup>19)</sup> 등을 통해 엄청난 양의 중국 서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高麗史·樂志·唐樂』에 실린 宋詞, 宋 范仲淹의 「剔銀燈」을 약간 고쳐서 쓴 崔執鈞(14世紀前後)의 「剔銀燈」, 宋 歐陽修的 「朝中措(平山闌檻倚晴空)」의 韻을 次韻한 金九容(1338-1384)의 「朝中措·代人」, 宋 無名氏의 작품인 「卜算子(曾約再來時)」의 韻을 次韻한 金九容의 「卜算子·代人」, 그리고 金 吳激의 「人月圓(南朝千古傷心事)」과 元 元好問의 「念奴嬌(雲間太華)」 본뜬 李齊賢(1287-1367)의 「人月圓」과 「大江東去·過華陰」 등을 보면, 상당수의 詞籍이 고려에 들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sup>20)</sup>

넷째, 왕들의 애호 때문이다. 현존하는 자료들을 본다면 填詞하는데 있어 이 지식층 집단을 선도한 사람은 바로 高麗의 王이었다. 宣宗뿐만 아니라 睿宗과 毅宗도 填詞한 기록이 있다. 이렇듯 宣宗, 睿宗, 毅宗 모두 연회석상에서 친히 填詞하였고, 그 중 睿宗은 신하들에게 唱和하라 요구할 정도였으니, 통치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하여 高麗의 관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填詞하였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왕들이 연회에서 사용한 당악

17) 『宋史·高麗傳』 14039, 14040, 14044, 14048; 『국역 高麗史節要』 III 576-577 쪽 참고.

18) 『국역 高麗史節要』 (I) 527쪽, (II) 599쪽 참고.

19) 『宋史·高麗傳』 14,048쪽, 『국역 高麗史節要』(I) 606쪽 참고. 蘇軾은 고려 사신의 책 구매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宋 哲宗에게 「論高麗買書利害劄子」를 바치는데, 그 내용 중에 외국인의 서적 구매를 계속 용인하면 “則中國書籍山積於高麗, 而雲布於契丹矣”라는 말이 있다. 『蘇軾文集』 999쪽 참고.

20) 소식은 고려의 사신이 송에 와서 중국 서적을 구입하는 것이 국역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蘇軾文集』卷35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려에 중국의 서적이 수집되면 북방의 오랑캐들에게도 흘러들어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지형과 요새를 적들이 잘 알게 되어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臣所憂者, 文書積於高麗, 而流於北虜, 使敵人周知山川險要邊防利害, 爲害至大..)”라고 되어있다.

(唐樂)도 고려사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21)</sup>

주지하다시피 이제현은 고려가 40여 년간의 대몽항쟁을 포기하고 강화도로부터 還都하여 元나라에 예속된 지 17년 후인 1287년(충렬왕 13) 12월 25일에 개성에서 檢校政丞 李璘의 차남으로 태어나, 원이 망하기 1년 전인 1367년(공민왕 17)에 죽기까지 80평생을 원의 고려 지배라는 미증유의 민족수난기에 살았다. 그는 차례로 6대의 왕을 섬기며 국가의 중책을 두루 맡은 정치가이자 문인이었다. 28세가 되던 해 충선왕의 부름을 받고 원나라 수도에 가게 되었다. 이 때 충선왕은 충숙왕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태위로 있으면서 원나라 수도에 萬卷堂을 짓고 학문 연구로 즐거움을 삼고 있었는데, 元나라 文人에 대적할 만한 인물로 이제현을 불렀다. 당시 元代의 문인 姚燧, 趙孟頫, 元明善, 張養浩 등이 만권당에 드나들었으므로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음률에 익숙하지 못한 고려인으로서 填詞까지 할 수가 있었다. 30세(1316년)에 아미산에 奉祭하기 위하여 祭官의 한 사람으로서 西蜀을 다녀왔다. 그는 이르는 곳마다의 名勝古跡에 대해 題詠, 詠史하였는데, 이 시들을 묶은 것이 『西征錄』이다. 그는 1316년 가을과 겨울에 북경에서 사천성 아미산까지 왕래했는데 이때 20수를 지었다. 1319년 여름과 겨울 사이에 북경으로부터 절강성 보타산까지 왕래했는데 여기서 2수를 지었다. 또 1316년 아미산 여행을 다녀온 후 연경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瀟湘八景’ 16수와 ‘松都八景’ 16수를 총 32수를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알기 어렵다.

21) 자세한 것은 류기수의 「高麗時代의 詞人 및 詞文學의 發展 背景 考察」, 『中國學研究』 제29집, 중국학연구회, 2004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 3. 李齊賢의 蘇軾 豪放詞의 수용양상

#### 3.1 호방사의 정의 및 특징

무릇 風格이란 말은 중국에서 매우 일찍부터 문학비평용어로 사용되었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풍격이란 뜻의 라틴어 “stylus”는 처음에 수사학 범주에 속하여 “작가의 사작필법”과 “작품의 특수격조”등의 뜻을 포함하고 있었다. 각 작가나 작품이 풍격을 논하는 것은 전통적인 시화나 사화에서 뿐만 아니라 근간에 이르러서도 문학비평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있어서 근래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풍격이란 용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해보려고 시도하였다. 먼저 중국의 몇 가지를 살펴보면 『辭海』에서는 “작가·예술가가 창작 중에 표현해 낸 예술특색과 창작개성”이라고 하였고, 張少康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통일된 특징적인 표현”이라고 하였고,<sup>22)</sup> 陸侃如是 “예술가가 창작중에 표현해 낸 사상 내용과 예술 형식상의 통일된 예술특색”이라고 하였다.<sup>23)</sup> 우리나라에서도 차주환은 풍격을 “風神品格”의 약어로 정의하고, 이는 “美的 種類”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동향은 “작가의 내재적 정신과 정서의 특성이 작가의 개성적인 형식을 통하여 표현된 것”이라고 하였다.<sup>24)</sup> 이병한은 풍격에 대한 정의를 직접내리는 대신 풍격·격조·품격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풍격은 전체의 분위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격조는 개별 작품의 성취수준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품격은 분류작업 자체인 것”<sup>25)</sup>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말들을 종합해보면 문학에서의 풍격이란 작품의 내용과 형식상에 종합적으로 표현해 낸 고유한 예술특색과 창작개성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한 작가의 풍격이 개인의 생활경력·입장관점·예술소양·개성특징에 따라 형성되는 만큼 작가연구에 있

22) 張少康, 『中國文學創作論』, 北京大學出版社, 1983, 307쪽.

23) 陸侃如 外, 『劉勰和文心雕龍』, 北京: 中華書局, 1980, 148쪽.

24) 이동향, 『稼軒辛棄疾詞研究』, 서울: 통문관, 1984, 389쪽.

25) 이병한, 『漢詩批評의 體例研究』, 서울: 통문관, 1974, 90쪽.

어서 풍격의 고찰은 작가의 면모를 규정짓는 중요한 작업이며, 따라서 사문학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풍격이라고 할 수 있다.

蕭繼宗은 “이제현의 이 사집은 비록 益齋 中年의 작품이며 그 기간이 매우 짧은 하지만 그의 공력은 이미 심후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의기가 豪邁하고 吐辭가 英爽하여 거의 聲律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은 듯하다. 대략 韓愈와 杜牧之의 자질을 본받고 소동파와 신기질의 뒤를 이어 중국 땅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역시 名家로 처질 것이다. 그의 氣格은 元好問과 서로 伯仲하다. 이 篇章이 한국인이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평했다.<sup>26)</sup> 또한 夏承燾는 “이제현은 소식을 흠모하여 그의 사가 비록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면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念奴嬌·過華陰」·「水調歌頭·過大散關」·「水調歌頭·望華陰」과 소령의「鷓鴣天·飲麥酒」·「蝶戀花·漢武帝茂陵」·「巫山一段雲·北山烟雨」·「巫山一段雲·長湍石壁」등은 모두 원호문의 풍격이 있으니 조선 詞人 중에서 거두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sup>27)</sup>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제현은 소식의 호방풍격 사를 받들어 창작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詞의 유파는 일반적으로 婉約派와 豪放派로 양분되는데, 호방파는 蘇軾(1036-1101)에 의하여 창시되고 대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sup>28)</sup> 호방사라고 하면 대개 소식의 「念奴嬌」(大江東去)나 辛棄疾

26) 蕭繼宗, 「李益齋과 그의 詞가 韓國文學에 끼친 공헌을 논함」, 『東洋學』 제2집,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1972, 13쪽.

27) “益齋翹企蘇軾, 其詞雖動蕩開闢, 尙有不足, 然「念奴嬌」(過華陰), 「水調歌頭」之(過大散關)·(望華陰), 小令如「鷓鴣天」之(飲麥酒), 「蝶戀花」之(漢武帝茂陵), 「巫山一段雲」之(北山烟雨)·(長湍石壁)等, 皆有遺山風格. 在朝鮮詞人中, 應推巨擘矣.”(夏承燾, 『域外前言』)

28) “詞自晚唐五代以來, 以清切婉麗爲宗, 至柳永而一變, 如詩歌之有白居易, 至軾而又一變, 如詩家之有韓愈, 遂開南宋辛棄疾等一派. 尋源溯流, 不能不謂之別格, 然謂之不工則不可.”(清 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卷40 「集部·詞曲類1·東坡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8, 4422쪽); “詞至辛稼軒而變, 其源實自蘇長公.”明 王世貞, 『藝苑卮言』(唐圭璋編, 『詞話叢編』, 北京: 中華書局, 2005), 391쪽.

(1140-1207)의 비분강개한 애국사를 떠올리겠지만 이런 작품은 豪放詞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에 속한다. 그러므로 호방사라고 해서 다 이 정도의 광활함과 웅장함을 지닌 것은 아니다. 심지어 明代의 詞評論家 俞彥(1615전후)처럼 소식에게는 豪放詞가 「念奴嬌」(大江東去) 1수뿐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sup>29)</sup> ‘豪放’은 ‘豪’의 개념에 중점을 둔 협의의 호방과 ‘放’의 개념에 중점을 둔 광의의 호방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sup>30)</sup> 俞彥은 협의의 호방이라는 기준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소식사의 豪放性을 가늠한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호방사로 볼 것인가? 이것에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南宋代 사론가 張炎은 豪放詞를 雅詞와 대립시켰으며, 豪氣는 원해 호매한 인품을 나타내는 용어인데,<sup>31)</sup> 唐 司空圖『二十四詩品』에서 이미 豪放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장염이 처음 豪氣를 사론의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후대 사론가들은 豪放이란 용어를 사풍을 지칭하는 의미로 정착시켰다. 명대 張綰이 처음으로 사를 호방과 완약 두 사파로 구분지었다.<sup>32)</sup> 또한 王雙啓는『歷代豪放詞選·前言』에서 호방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婉’과 ‘豪’가 가리키는 것은 詞인이 묘사하는 서로 다른 감정의 유형으로 전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데 후자는 광활하고 웅장하다. 이 글자는 사의 내용에 중점을 둔 구분이다. ‘約’과 ‘放’이 가리키는 것은 감정을 묘사한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자는 함축적이고 은근하며 후자는 명확하고 시원하다. 이 두 글자는 사의 표현방식에 중점을 둔 구분이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호방사는 폭넓은 제재, 광활한 境界, 강건한 언어, 상쾌하고 명량한 감정

29) 明 俞彥, 『爰園詞話』: “其豪放亦止「大江東去」一詞”, 『詞話叢編』, 402쪽.

30) 柳種陸, 『蘇軾詞研究』, 대구: 중문출판사, 1993, 236-237쪽 참조.

31) 『三國志魏陳登傳』: “陳元龍湖海之士, 豪氣不除”

32) 王又華, 『古今詞論』, 唐圭璋, 『詞話叢編』, 臺北: 新文豐出版社, 1988, 596쪽. “張世文이 말하길 「사체는 대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완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호방이다. 무릇 詞情이 함축적이고, 기상이 넓음을 일컬음이다. …… 대저 완약이 정이 된다.(張世文曰: 詞體大略有二: 一婉約, 一豪放, 蓋詞情蘊藉, 氣象恢弘之謂耳……大抵以婉約爲正也)”

등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왕왕 비교적 광활한 사회생활을 반영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이처럼 豪放詞는 내용면에서는 광활하고 웅장하며 표현방식 면에서는 시원해야 한다. 한편 王熙元은 婉約派와 豪放派의 사가 다른 풍격을 형성하게 되는 원인으로 “첫째 작자의 성격, 둘째 서정의 태도, 셋째 창작의 입장, 넷째 창작의 체재, 다섯째 언어 선택의 취향, 여섯째 상용하는 詞調, 일곱째 표현하는 미감, 여덟째 문학적인 경계가 다르다”등의 여덟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의 논지를 한 마디로 압축하면, 호방사는 호방한 성격을 지닌 사인이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주관적인 입장에 서서 통쾌하고 시원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수한직설적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이것은 王雙繼의 기준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처럼 두 사람의 기준이 일치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가지 요소가 있다. 사의 완약성과 호방성은 주로 내용과 표현방식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것의 음악적 측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완약사는 음률적 요건을 중시하고 호방사는 음률적 요건을 비교적 경시하는 편이다. 이러한 인식은 송대부터 이미 있어 왔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東坡는 노래를 부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사는 음률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지만 晁以道(說之)가 “紹聖(1094-1097)初에 東坡와 汴水에서 작별했는데 술이 얼큰해지자 스스로 『陽關曲』을 노래 불렀다”라고 한 것을 보면 公은 노래를 부를 줄 모른 것이 아니라 성격이 호방하여 마르고 잘라서 聲律에 맞추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이다.”<sup>35)</sup>

33) 王雙啓等選注, 『歷代豪放詞選·前言』,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4, 6쪽.

34) 王熙元, 「論婉約與豪放詞風的形成」, 『國文學報』第五期, 臺北, 1976, 246-252쪽.

35) “世言東坡不能歌, 故所作樂府多不協律. 晁以道謂: ‘紹聖初與東坡別於汴上, 東坡酒酣, 自歌『陽關曲』’. 則公非不能歌, 但豪放不喜翦裁以就聲律耳.” 『詞話叢編』, 1176쪽.

이것은 蘇軾詞가 音律에 잘 맞지 않음이 豪放한 풍격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호방사와 음률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상으로 통해 필자 나름대로 호방사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적으로 남성적인 기상과 호방한 필치로 스케일이 크고 시원스럽고 또한 남성적인 의상을 사용하여 호방하고 강개함이 느껴지는 작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형식상 있어서 무릇 사는 엄격한 격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마음속의 言志와 抒情을 자유롭고 발산한 작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두 가지를 호방사의 기준으로 삼고, 논자들이 호방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대표적인 작품 몇 몇을 골라 살펴볼 것이다.

### 3.2 이제현의 소식 호방사 체험과 습작

일찍이 소식의 사는 송 당대부터 크게 호평을 받았고<sup>36)</sup> 그를 표방하는 사인들도 하나의 사파를 형성할 정도로 많았다. 중국문인들 뿐만 아니라 소식의 문장은 高麗문인들에게도 전래되어 배우고 익혔다. 물론 이제현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蘇軾의 사를 무척 높이 받들었다. 그는 「眉州」詩의 序에서 “우리 아버지는 삼형제가 모두 문필이 동방에서 뛰어났다. 백부와 계부는 차례로 돌아가시고 오직 아버지만이 병환이 없으셔서 올해 연세가 칠십하고도 우수리가 있다. 만약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북쪽으로 오셔서 中原 땅의 훌륭한 사대부들과 함께 문단에 드나드실 수 있게 한다면 비록 우리 자신을 감히 소씨 집안의 부자에 비견할 수는 없을지라도 또한 이름이 한 시대를 뒤흔들 수 있을 것이다.”<sup>37)</sup>라고 했는데, 이는 자기 부자를 蘇氏父子에 비견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36) “소식 선생은 비록 음률에 심취하였던 것은 아니나, 마침 지었던 노래 가사들이 향상의 일로를 가리켰고 천하의 이목을 새롭게 하여, 붓을 놀리는 사람들이 비로소 스스로 분발할 줄 알게 되었다.(東坡先生非心醉於音律者, 偶爾作歌, 指出向上一路, 新天下耳目, 弄筆者始知自振.)”(王灼, 『碧鷄漫志』卷二)

37) “吾大人三昆季, 俱以文筆顯於東方. 伯父季父, 相次仙去, 唯公無恙, 年今七十有奇. 若使北來, 得與中原賢士大夫, 進退詞林間, 雖不敢自比於蘇家父子, 亦可以名動一時.”(『益齋亂藁』卷一)

이제현의 사는 5-6수 정도의 婉約詞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豪放하거나 淸麗曠達한 풍격을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풍격 분포는 소식사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다.<sup>38)</sup> 아래에서 이제현사와 소식의 豪放詞를 각각 비교해가며 살펴보기로 한다.

李齊賢, 「玉漏遲」蜀中中秋值雨(촉지방에서 중추절에 비를 만나다.)  
 豈料數陣頑雲。忽掩却天涯。廣寒宮闕。失意初筵。唯聽秋蟲鳴咽。莫恨恒  
 娥薄相。且吸盡杯中之物。圓又缺。空使早生華髮。(하편)

어찌 짐작하였겠는가? 여러 무더기 드센 구름이  
 갑자기 하늘가 광한궁을 덮어 버릴 것을  
 갓 자란 잔치에서 실망하면서  
 오직 가을벌레 흐느끼는 소릴 듣는다  
 향아의 박복한 상을 한탄하지 말고서  
 잠시 잔 속의 물건 다 들이켜 버릴 일이다  
 둥글어졌다 또 이지리졌다 하여  
 부질없이 흰 머리 일찍 나게 하네

여기에 쓰인 「玉漏遲」는 唐代 白居易의 시에 “天涼玉漏遲”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조명을 따왔다. 이 사조는 모두 7개가 있는데 쌍조 94자, 전단 19구 5측운, 후단 9구 5측운이 정격이다. 이제현의 사는 정격이나 전단 1구에도 압운하여 전단이 6측운이 되었다. 이 사는 그가 중추절에 촉지방을 유람하다가 비를 만나 감흥이 일어나 짓게 되었다. 오랜 국가인 고려가 원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현실을 비유하며 개탄하고 있다. “어찌 짐작하였겠는가? 여러 무더기 드센 구름이, 갑자기 하늘가 광한궁을 덮어 버릴 것을.(忽掩却天涯。廣寒宮闕)”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호방함을 감지할 수 있다. ‘드센 구름’이라는 강인한 의상과 ‘하늘의 광한궁을 덮어버린다’

38) 風格의 분류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필자는 본고에서 지나친 세분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유형인 완약사풍과 호방사풍의 이분법을 따르되 그 중간 형태인 淸麗曠達 즉 청려풍격도 호방사에 포함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는 기개에서 우리는 剛健하고 豪放한 풍격을 엿볼 수 있다. 가을벌레 슬프게 우는 모습에서 전형적인 悲秋意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且吸盡杯中之物(잠시 잔 속의 물건 다 들이켜 버릴 일이다)” 구절에서 근심을 잊고자 술을 한꺼번에 들어부어 마시는 남성의 호탕한 기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구절 “圓又缺。空使早生華髮(둥글어졌다 또 이지러졌다 하여, 부질없이 흰 머리 일찍 나게 하네)”에서는 중추절에 달을 보면서 둥글었다 이지러지며 수시로 변하는 달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있고, 어느덧 머리는 희끗희끗한 자신을 발견하며 인생무상에 대한 비애를 읊고 있다.

蘇軾, 「水調歌頭」丙辰中秋, 歡飲達旦, 作此篇兼懷子由(병진년 1076년 중추에 새벽녘까지 기분 좋게 술을 마셔 크게 취한 채 이것을 짓고 아울러 子由를 생각한다.)

轉朱閣, 低綺戶, 照無眠。何事長向別時圓? 人有悲歡離合, 月有陰晴圓缺, 此事古難全, 但願人長久, 千里共嬋娟。(하편)

달은 붉은 누각을 돌아  
비단문에 내려와  
잘 못 드는 이를 비추어 준다.  
달은 원한이 있을 터도 없는데  
무슨 일로 언제나 이별에 때 맞추어 둥글어지나  
사람에게 슬픔과 기쁨, 헤어짐과 만남이 있고  
달에겐 흐림과 맑음, 둥글어짐과 이지러짐이 있는 법  
이것은 예로부터 온전하기 어렵다네  
다만 원하기를 오래오래 살아서  
천리 밖에서나마 고운 달 함께 보기를

위의 이체현사와 소식의 사는 모두 중추절을 맞이하여 밤하늘의 달을 쳐다보면서 달이 때가되면 차고 이지러지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러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조로부터 설리적인 내용을 담아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국가의 한과 흥망성쇠의 감개를 기탁하여 豪宕하게 묘사하였다.

李齊賢, 「木蘭花慢」長安懷古(장안에서 옛 생각하다.)

夕陽西下水流東。興廢夢魂中。笑弱吐強吞。縱成橫破。鳥沒長空。爭如似  
犀首飲。向蝸牛角上任窮通。看取麟臺圖畫。唯餘馬鬣蒿蓬。(하편)

석양은 서쪽으로 지고 물은 동쪽으로 가는데  
흥망은 꿈 속 같다  
우습다 약자가 토해내면 강자가 집어삼키고  
세로 이룩하였다가 가로 깨어지고는 하였는데  
새는 먼 하늘로 날아간다  
이 어찌 서수가 술 마시며  
달팽이 뿔 위에다 궁달을 맡겨 버린 것만이야 하라  
기린대의 그림을 보라  
다만 무덤에 축대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제현은 아미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장안에 들렀다. 오랜 도읍지 長安의 가을에서 변화하였던 옛날을 회상하였다. 典故와 聯想, 그리고 이  
제현의 사상 감정으로 주관적인 초탈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이 사는 懷古  
詞로써 장안을 지나가면서 고국인 고려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국가  
의 興亡盛衰를 한탄하고 변함없는 자연과 대비하여 덧없이 인생의 무상함  
이 잘 나타나 있다. 豪放하고 淒涼한 분위기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蘇軾, 「江城子」密州出獵(밀주에서 사냥을 나가다.)

老夫聊發少年狂, 左牽黃, 右擎蒼. 錦帽裘, 千騎卷平岡. 爲報傾城隨太守, 親  
射虎, 看孫郎.

酒酣胸膽尙開張, 鬢微霜, 又何妨? 持節雲中, 何日遣憑唐, 會挽雕弓如滿月,  
西北望, 射天狼.

늙은이가 젊음이 발동하여  
왼손에는 누런 사냥개 끌고  
오른쪽 어깨에는 참매를 얹혀놓고  
비단 모자에 담비 갓옷을 걸치고  
일천 기마대가 언덕을 에워쌌다.  
태수를 따르는 온 성내 사람들에게 보답키 위해  
내 손수 호랑이를 쏘아

손량의 기개를 보여주리라

술이 얼큰하니 가슴이 확 트인다.  
 귀밑머리 좀 희어진다 한들 무슨 상관있으랴?  
 질조 지키는 雲中の 魏尙같은 나를 사면시키려고  
 어느 때나 憑唐같은 이 오려나?  
 둥근달처럼 동그랗게 활시위를 힘껏 당겨  
 서북쪽을 바라보면서  
 天狼星을 쏘리라.

이 사에 사용된 「江神子」사조는 「江城子」, 「村意遠」, 「水晶簾」이라고도 불린다. 『花間集』에서 말하길, 이 사조는 五代 韋莊이 지은 사에서 처음 보인다. 淸 李良年의 『詞家辨証』에서 이르길 “남당 사람 張泌은 「江城子」 2결이 있다” 五代 歐陽修도 이 사조를 사용해서 전사했다. 사가운데 “如西子鏡, 照江城”라는 구가 있는데 본의를 마치 함축하는 것 같다. 唐代 사에서는 단조였으나 송나라 사람에 의하여 쌍조로 씌어졌다. 이 사조는 모두 5개의 체제가 있는데, 단조 4체와 쌍조 1체가 있다. 이 사조는 단지 쌍조 가운데 한 체일 뿐이다. 이제현의 이 사조는 [쌍조 70자, 전후단 각 7구, 총70자이다. 5평운]이고, 후단은 1,2,3,4,7구에 압운했으며 모두 평성운을 사용했다. 특히 “시로써 사를 짓다.(以詩爲詞)”의 창작기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雄壯하고 長闊한 의상을 다용하여 강건한 풍격의 기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런 사냥개’, ‘참매’, ‘창과 칼’, ‘깃발’, ‘은빛 화살통’, ‘금빛 화살’ 등과 같은 남성적이고 호전적인 단어가 기세등등하게 詞句에 들어가 이 사의 豪放하고 남성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李齊賢, 「水調歌頭」過大散關(대산관을 지나면서)

行盡碧溪曲。漸到亂山中。山中白日無色虎嘯谷生風。萬仞崩崖疊嶂。千歲  
 枯藤怪樹。嵐翠自濛濛。我馬汗如雨。脩逕轉層空。

登絕頂。覽元化意難窮。群峯半落天外滅沒度秋鴻。男子平生大志。造物當  
 年眞巧。相對孰爲雄。老去臥丘壑。說此託兒童。

푸른 시냇물 구비 돌아  
 깊은 산 속으로 다 다르네  
 산 속에선 밝은 해도 광채가 없고  
 범 울부짖으니 골짜기에 바람이 분다  
 만 길 무너져 내리는 벼랑과 포개진 병풍바위  
 천년 묵은 마른 등덩굴과 기괴한 나무에  
 푸른 산기운만 자옥하다  
 내 말은 땀이 비처럼 흐르고  
 긴 오솔길은 높은 하늘로 돌아든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조화의 위대한 작용 보자니  
 그 뜻도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렵다  
 무리진 산봉들은 하늘 밖에 솟아있고  
 가을 기러기는 아득히 사라지는구나  
 사나이 한평생의 큰 뜻과  
 조물주의 참된 기교  
 서로 마주 대하니 어느 쪽이 더 강한가?  
 늙어서 산골에 누워 살 때에  
 이 일 이야기하여 아이들에게 자랑하는 거라

여기에 사용된 「水調歌頭」사조는 「元會曲」, 「凱歌」, 「江南好」, 「花犯念奴」 등으로 불린다. 『樂苑』에서 “옛날에 이르길 「水調」, 「河傳」은 수나라 煬帝辛이 강도에서 지은 것이다. 곡은 절주로 이루어, 그 노래가 슬프고 애절하다.”라고 되어있다. 「水調」는 唐人이 지은 大曲으로 무릇 大曲에는 歌頭가 있고, 이것은 반드시 제재를 싣고 별도로 新聲이라고 했다. 이 사조는 평운, 평측운이 서로 압운되는 두 체이다. 平體韻은 송대 毛滂의 『東堂詞』에 보이고, 평측운이 서로 압운되는 것은 송대 蘇軾의 『東坡詞』에서 보인다. 또한 이 사조는 호방파가 즐겨 짓는 사패이다. 음률이 거침없고 질탕하기 때문이다. 이 사조는 모두 8개가 있다. [쌍조 95자, 전단은 9구 4平韻, 후단은 10구 4平韻]이 정격이다. 구법은 전단 4,4구와 후단 4,5구가 각각 4,5인데 변격은 이를 '6,5'로 하는 것이 있다. 이 사에서는 변격

을 사용했다. 이 사의 배경이 되는 大散關은 지금의 陝西省 寶雞縣 서남에 있는 대산령 위에 설치된 관문으로 진·축으로 왕래하는 길목으로 우뚝 솟아 있는 두 산 사이에 끼어있는 이 관문은 공격하러 나가면 공격할 수 있고, 들어오면 수비하는 험준한 요새이다. 이제현은 이 大散關을 통과하며 그 실제 광경을 꺾진한 필치로 감격 호탕하게 써내서 독자로 하여금 눈과 마음을 爽豁하게 해 준다. 대산관을 지나가면서 내려다보는 詞人의 특 트인 시야, 험준한 산, 바위, 절벽, 골짜기, 기이한 나무, 하늘높이 가파른 오솔길, 울부짖는 범이 있는 험난하고도 특 트인 배경과 그 위로 때마침 날아다니는 가을 기러기가 사라지는 정경이 그림처럼 조화되어 廣闊하고 거침없는 배경을 이루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기탁한 豪快한 기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자신의 늠름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어린아이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여 이에 대비시킴으로써 痛快하고 雄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이제현의 사중에는 소식이 즐겨 지었던 사조를 사용하거나 혹은 그의 사운에 차운하거나 화운하여 사를 짓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이제현의 「大江東去」(三峰奇絶)사와 소식의 「念奴嬌」(大江東去)에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이를 통해 소식에 대한 흠모의 정도를 설명해준다. 더구나 그의 사 구절에는 「水調歌頭」(天地賦奇特)의 “我欲乘風歸去”<sup>39)</sup>나 「玉漏遲」(一年唯一日)의 “早生華髮”처럼<sup>40)</sup> 소식의 詞句를 그대로 차용한 예도 있고,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약간씩 조절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식사의 意境을 재생시킨 경우<sup>41)</sup>도 있으니 이런 예들은 그가 소식사를 배우고 모방하여 직접 창작한 것이다. 아래에서 직접 살펴보자.

39) 蘇軾의 「水調歌頭」(明月幾時有) 사에 “我欲乘風歸去，又恐瓊樓玉宇，高處不勝寒.” 라는 구절이 있다.

40) 蘇軾의 「念奴嬌」(大江東去) 사에 “多情應笑我，早生華髮”라는 구절이 있다.

41) 이제현의 「巫山一段雲」(北山煙雨) “斷虹殘照有無中，一鳥沒長空”과 소식의 「水調歌頭」(黃州快哉亭贈張偓佺) “欹枕江南煙雨，杳杳沒孤鴻。認得醉翁語，山色有無中”。 이제현의 「鷓鴣天」(揚州平山堂今爲巴哈師所居) “堂前楊柳輕搖落，壁上龍蛇逸杳茫”과 소식의 「西江月」(平山堂) “壁上龍蛇飛動”，“仍歌楊柳春風” 등등 이외에도 많다.

李齊賢, 「大江東去」過華陰(화음을 지나가면서)

三峯奇絶。儘披露一掬天慳風物。聞說翰林曾過此。長嘯蒼松翠壁。八表游神。三杯通道。驢背鬚如雪。塵埃俗眼。豈知天上人傑。

猶想居士胸中倚天千文氣。星虹間發。縹杳仙蹤何處問。箭筈天光明滅。安得聯翩。雲裾霞佩。共散騏驎髮。花間玉井。一樽轟醉秋月。

기이한 세 산봉우리  
하늘이 아끼는 풍물 눈앞에 드러내었다  
듣자하니 한림이  
마침 이 곳을 지나며 푸른 술 깎아지른 절벽에 길게  
휘과람 불고  
정신을 세속을 벗어나고  
석 잔으로 도에 통달하고  
나귀 등에서의 수염은 눈 같구나  
티끌세상 속된 눈으로야  
어찌 천상의 人傑을 알겠는가!

지금도 생각하네 거사의 가슴속은  
하늘에 빠치는 천 길 기운이  
별같이 무지개같이 가끔 나타나는 것을  
아득히 먼 신선의 자취를  
어디에서 묻나 전광령엔 하늘빛만 명멸하는데  
어떻게 하면 훨훨 날아  
구름 같은 옷자락에 노을 같은 패옥으로  
나와 함께 기린 머리털 풀어헤치고  
꽃 사이 옥정에서  
한 통의 술로 가을 달에 만취할 수 있으려나

이제현은 화산의 명승을 보며 李白을 흠모하고 그 선경을 동경해서 이사를 지었다. 그는 지금 陝西省에 있는 화음현 성을 지나가면서 화산의 기이한 낭떠러지 절벽을 보고, 동파가 적벽에서 삼국인물과 그 風情을 생각하여 百字수를 지은 것을 연상하면서 이백이 이곳을 지나가던 일에 부쳐 이백의 仙骨을 동경하고 있는 뜻을 蘇軾의 「念奴嬌」(赤壁懷古)에 次韻한 것이다.<sup>42)</sup> 또한 華山을 소재로 삼아 지었는데, 소식사의 對句와 用字 모

두 비슷하다. 특히 蘇軾의 「念奴嬌(赤壁懷古)」사에 대해서 차주환은 『韓國詞文學論考』에서 “격조가 노련, 웅건, 고상, 원대하다(蒼勁高遠)”라고 평가하였다. 이 사는 소식의 호방한 풍격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그는 적벽에서 옛일을 회고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광활하고 웅장한 역사의 풍운과 천고이래의 풍류인물을 휩쓸듯 끝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작자의 웅장한 정치포부와 豪放한 영웅기개를 펴내고 있다. 사 가운데에 또한 씩씩한 기개를 아직 다하지 못한 감개와 인생은 꿈과 같다는 인생무상을 표출하였다. 특히 “빠죽한 바윗돌은 하늘을 찌르고, 놀란 파도는 강 언덕을 두드리며, 천 무더기 눈 더미를 말아 올린다. 그림 같은 이 강산(亂石崩雲, 驚濤裂岸, 卷起千堆雪, 江山如畫.)”라는 구절에서 웅장하고 호방한 기상을 느낄 수 있다.

#### 4. 결론

이상 필자는 본고에서 중국사가 고려시대 유입된 경로와 이제현의 사문학 창작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제현이 소식의 호방사를 본보기로 삼아 배우고 습작한 흔적을 살펴보았다. 그 수용양상은 비슷한 내용·주제·전고의 사용, 같은 사조의 운용, 비슷한 구절이나 어구의 차용, 소식사의 원운

42) 蘇軾, 「念奴嬌」: “長江은 도도하게 동으로 흘러가며, 물결이 깡그리 천고의 풍류 인물들을 씻어 내렸구나! 옛날 보루 서쪽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삼국시대 周郎의 赤壁이란다. 빠죽한 바윗돌은 하늘을 찌르고, 놀란 파도는 강 언덕을 두드리며, 천 무더기 눈 더미를 말아 올린다. 그림 같은 이 강산, 한때 호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 멀리 周公謹의 그때 일을 생각하니, 小喬가 갓 시집 왔었고, 웅장한 자태에 才氣가 번득였겠지. 깃털 부채 들고 綸巾을 쓰고, 담소하는 사이에, 장적들의 배는 불에 타서 재가 되고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겠지. 고향 땅으로 내 마음은 달리나니, 다정한 그대는 틀림없이 웃을 테지. 흰 머리카락이 일찍이 났다고, 인생은 꿈 같은 것, 그래도 술 한잔을 강숙의 달에게 부어준다.(大江東去, 浪淘盡, 千古風流人物. 古壘西邊, 人道是, 三國周郎赤壁. 亂石崩雲, 驚濤裂岸, 卷起千堆雪, 江山如畫. / 遙想公謹當年, 小喬初嫁了. 雄姿英發, 羽扇綸巾, 談笑間, 檣櫓灰飛煙滅. 故國神遊, 多情應笑我, 早生華發, 人生如夢, 一樽還酹江月.)”

에 대해 차하거나 혹은 화운함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제현의 사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력의 결과로 크게 흠잡을 데가 없으나, 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詩에 가까운 것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현은 중국의 대문호 소식을 흠모하면서 “以詩爲詞”의 사창작법을 받아들여 자신의 사창작에 적용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당시 남송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두드러진 사풍의 특징은 나라를 잃은 설움이나 恨에서 나오는 悲憤慷慨한 마음을 노래한 豪放한 작품이 대량으로 출현하여 유행했는데, 당시 고려도 이와 비슷했다. 元의 속국이었던 高麗의 한 사신으로 元에 갔던 이제현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 悲壯한 필치로 망국의 비통함과 이방인으로서의 처량한 심정을 豪放하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고려 출신의 문인으로서 원대의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酬唱할 수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하나 이제현은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詞가 자생적으로 우리 토양에서 배양된 것이 아니어서 몸에 배지 않았던 터라 律調나 정치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감흥과 풍유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처지는 못 되었다. 물론 그가 소식의 사풍을 배우고 모방하여 창작하였지만, 자신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변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 金台俊 著,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蔡嵩雲 箋釋, 『樂府指迷箋釋』,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3.  
 金庠基, 「李益齋의 在元 生涯에 대하여」, 『大東文化研究』제1집,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阮, 1963.  
 鄭麟趾 等, 『高麗史』, 臺北: 文史叢出版社, 1972.

- 韓國漢文學研究所編, 『益齋亂稿』, 首爾: 亞細亞文化社, 1973.
- 이병한, 『漢詩批評의 體例研究』, 서울: 통문관, 1974, 90쪽.
- 陸侃如 外, 『劉勰和文心雕龍』, 中華書局, 1980, 148.
- 張少康, 『中國文學創作論』, 北京大學出版社, 1983, 307쪽.
- 徐兢, 『宣和奏使高麗圖經』, 歙州: 江甌廣陵古籍刻印社, 1984.
- 王雙啓 等 選注, 『歷代豪放詞選』,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4, 6쪽.
- 李東鄉著, 『稼軒辛棄疾詞研究』, 서울: 통문관, 1985.
- 脫脫,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85.
- 孔凡禮, 『蘇軾文集』, 中華書局, 1986.
- 王熙元, 「論婉約與豪放詞風的形成」, 『國文學報』第五期,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系, 臺北, 1987.
- 朴容大等, 『增補文獻備考』, 서울: 한국학진흥원, 1987.
- 金宗瑞 等, 『國譯高麗史節要』, 서울: 민문庫, 1989 重版.
- 李肯翊, 『國譯 燃藜室記述』, 서울: 민문庫, 1989 重版.
- 朱祖謀 輯校, 『疆村叢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金聖基, 『李齊賢의 詩文學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黃拔荊, 「試論中國豪放派詞風對朝鮮詞人李齊賢的影響」, 『國外文學』, 1990.
- 羅慷烈, 「高麗·朝鮮詞說略」, 『文學評論』, 1991.3.
- 柳己洙, 『李齊賢及其詞之研究』, University of Hong Kong, 博士學位論文, 1991.
- 吳熊和 著, 이흥진 역, 『唐宋詞通論』,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 李丙疇 等, 『韓國漢文學史』, 서울, 반도출판사, 1991, 165쪽.
- 車柱環, 「高麗與中國詞學的比較研究」, 『詞學』第9輯, 1992.
- 류기수, 「中國과 韓國의 ‘巫山一段雲’詞 研究」, 『中國學研究』 제8집, 1993, 236-237쪽.
- 金乾坤, 『李齊賢文學研究』, 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3.
- 류종목, 『蘇軾詞研究』, 중문출판사, 1993, 236-237쪽.
- 楊海明 著, 이종진 역, 『唐宋詞風格論』, 신아사, 1994.

- 車柱環, 『中國詞文學論稿』,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楊海明著, 류종목·송용준 공역, 『唐宋詞史』, 신아사, 1995.
- 柳榮基, 「蘇軾與韓國詞文學的關係」, 『復旦學報』, 1997.6.
- 류종목, 「고려 및 조선 문단에 있어서의 중국 사문학의 수용과 전개」, 『中國學報』第四十輯, 1999년12월.
- 李鳳能, 「李齊賢和他的旅蜀詞」, 『文史雜誌』, 2000.1.
- 지영재 지음, 『서정록을 찾아서』, 푸른역사, 2003.
- 劉澤宇, 「元高麗詞人李齊賢의兩首華山詞」, 『渭南師範學院學報』2003.
- 류기수, 「高麗時代의 詞人 및 詞文學의 發展 背景 考察」, 『中國學研究』 제29집, 중국학연구회, 2004.9.
- 尹上林, 『益齋 李齊賢 詩·文의形象及技法』, 太學社, 2004.
- 唐圭璋, 『詞話叢編』(全五卷), 北京: 中華書局, 2005, 1479쪽.
- 류기수, 『歷代韓國詞總集』,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6.
- 이태형, 「李齊賢詞의內容風格及修辭技法」, 『中國語文學論集』 第49輯, 2008.4.

투고일 : 2009년 12월 31일, 심사 : 2010년 1월 11일~29일, 게재확정 : 2010년 2월 1일

<Abstract>

A study of GoRyu(高麗) LiQiXian(李齊賢) Ci Poetry  
(詞)'s receptivity from SuShi(蘇軾) HaoFangCi(豪放詞)

Lee Tae Hyoung / Park Mi Suk

I am finds out that the characteristics in the early form and degree of receptivity process from Chinese Ci Poetry through analysis and literature study about authors of the formative period of Go-Ryu and their works. After Ci Poetry was inflowed into the Go-Ryu from China, trying to create Ci Poetry first and adopting an author who played a fixed role in forming Ci Poetry literature and works as category. Ci Poetry that was created in the formative period of Go-Ryu, made use of China's Ci-Pai(詞牌) and the then Li Qi Xian used various Su Shi(蘇軾)'s Ci-Pai(詞牌). and He receptivity from sushi(蘇軾) Hao Fang ci poetry(豪放詞) style. He is a great Ci Poetry in the famous scholar of the late Koryo Dynasty from a perspective Ci Poetry writer. He lived in China (Yuan Dynasty) for a long time and made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literary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yo. In general, the contents of China written by Li Qi Xian's Ci poetry is described as the beautiful nature viewed while traveling of the utopian through formed while communication, and feeling about the superior being, expressed because of the heavy spiritual pressure to him.

Key words : Li Qi Xian(李齊賢), Koryo Dynasty(高麗), Yuan Dynasty(元), Su Shi(蘇軾), Hao Fang Ci Poetry(豪放詞)